

종합

심야 여성 전용 택시 나온다

심부름 택시도 ... 승차거부·부당요금 퇴출

한밤 중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1천cc 이하 경차 택시와 외국인 전용 택시, 심부름 택시도 생기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을 요구하는 불량 택시는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는 운송사업자를 택시사업자로 범위를 정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를 통해 심부름 기능을 하는 택시나 외국인이나 심야 여성만을 위한 전용택시 등 수준 높은 택시 서비스제공업체가 생겨나게 된다.

또 1천cc이하 경차도 택시운송사업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택시의 이용 선택폭을 확대했다. 현행 택시는 1천600cc 이상 소형과 중형, 대형, 모범형, 고급형으로 구분돼 있다.

아울러 택시업체가 받은 과태료나 사업점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원당 1점, 운행정지 및 사업점지 등은 1일 1대당 2점으로 하고, 특히 승차거부·중도하차·부당요금·합승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은 5배를 가중해 벌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체장 호화 집무실 규제

내년부터 법으로 정해

내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부속실 등이 포함되고 집무실 면적 기준은 자단체의 조례가 아닌 법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단체장 집무실 면적에 내실과 화장실 등 개인 공간뿐 아니라 비서실과 접견실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속실 등을 포함한 집무실 면적이 기준을 초과한 지자체는 집무실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록도에 '세계적 선율' 울려 퍼진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섬 소록도에 세계 정상급 교향악단의 선율이 울려 퍼진다.

1945년 창단 후 영국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이하 필하모니아)가 2010년 5월 5일 국립소록도병원(원장 박형철)에서 공연을 갖는다.

푸른 눈의 연주자들이 어떻게 전라도 땅 한센병력자들의 가슴에 사랑의 멜로디를 전하게 됐을까. 그 사연 뒤에는 로더미어(Rothermere) 자작 부인(60), 이정선, 마이코로 불리는 한 여성이 있다.

주인공은 영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데일리 메일(Daily Mail)' 운영자이자 영국 세습귀족인 비어할스 위즈 로더미어(1925~98) 자작의 미망인인 로더미어 부인이다.

일본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모델로 활동하던 로더미어 자작을 만나 결혼한 그녀는 남편 사후 자신의 이름을 딴 '레이디 R 재단'을 설립, 케냐와 톰토모 등 세계 각국에서 자선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부터 국내 자선 활동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그녀가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이 바로 소록도다. 소록도를 방문한 교향 바오로 2세의

영국 '필하모니아' 후원회장 로더미어 여사 주선

내년 5월 5일 소록도병원 한센인 위한 공연 추진

아버지 고향 함평과 인연 나비 홍보대사 활동도



지난 6월 소록도병원을 찾은 로더미어 여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한센병력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소록도병원 제공)

모습 등을 보고 한센병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녀는 지난 2004년 소록도를 처음 방문한 후 지금까지 4

차례 소록도를 찾아 한센병력자들을 위로했다.

지난 6월 소록도를 찾은 그녀는

병원 측에 자신이 후원회장으로 있는 필하모니아의 공연을 제안했다. 그녀는 "한센병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없애고,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이들의 모습을 전 세계에 알려 환자들을 진정함 마음으로 위할 후원자들을 모으고 싶다"고 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그녀는 전남 지역과 인연이 깊다. 아버지의 고향인 함평 시온원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함평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홍보대사로도 활동했고 올해는 '대한민국 국향대전' 명예회장으로 맡았었다.

런던 로얄 페스티벌홀의 상주 오케스트라인 필하모니아는 리카르도 무타, 구스타보 두다멜 등이 지휘봉을 잡았던 교향악단으로 올해는 자신의 음악인생 50주년 기념 연주중인 세계적인 거장 로린 마젤과 유럽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사라장, 람랑 등 정상급 연주자들 과도 무대를 꾸민 필하모니아는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 지휘로 내년 5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협연 무대를 갖는 등 한국 공연을 준비 중이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공무원 정책 반대 집단행위 금지

다음 달부터 공무원들은 집단적으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해서도 안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집단이나 연명, 또는 단체 명의를 사용해 국가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정책의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구호를 담근 조끼나 머리띠, 완장 등을 착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행안부는 지난달 21일 마련한 입법 예고안에서는 공무원 개인도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 규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집단적인 반대행위만 금지하기로 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來道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부터 3일간 전남을 방문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장성군을 시작으로 26일 담양군, 27일 목포시 등 3개 시·군을 방문

해 이흥신로고, 복지시실, 농공단지 등을 둘러보고 지역 사회단체와 간담회도 갖는다. 또 담양 88고속도로 전광판 이전 요구와 목포 백련마을 택지개발지구 편입 요구 등 집단민원 현장도 방문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자이트 주한독일대사 來光



한스 울리히 자이트(Hans-Ulrich Seidt) 주한 독일 대사가 25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리는 '독일 건축전시회'

개막식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다.

자이트 대사는 개막식에서 축사를 한 뒤 박광대 광주시장을 예방, 광주-독일 우호교류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軍복무 단축기간 2~3개월로 해야 쌀 원산지 표시 모든 음식점 확대

국방부 "병역자원 부족 완화"

국방부는 24일 군 복무기간 단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을 2~3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 유승민 의원 측의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국방위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검토의견서에서 "병 복무기간을 2~3개월만 단축할 경우 전투력 저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방개혁 추진 시 예상되는 추가병력 소요에 대응할 수 있다"며 "2021년 이후 병역자원 부족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19조는 '국무회의의 심

의를 거쳐 대통령령의 승인을 얻은 경우 현역의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오는 2014년 6월까지 복무기간을 육군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6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8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6개월씩 단축키로 했다.

다만 의견서는 "법을 개정 이전에 입대해 군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조정된 복무기간 적용 대상은 법률시행 이후 입대자로 부처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현재 진행 중인 병 복무기간 단축을 중단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복무 단축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 추진

앞으로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행정규칙·법령 중 국민에게 불만을 주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171건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음식점만 의무적으로 쌀(밥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음식점 65만여 곳 중 80%의 면적이 100㎡ 미만인 여수 음식점을 사용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전 실태 조사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말까지 전면 실시를 검토

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가공식품의 국내산 혼합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에만 원산지별 혼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기존에는 원산지의 국가별 혼합비율이 최근 1~3년간 연평균 3회 이상 변경될 경우 포장지 변경에 따른 업체의 생산 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국가별 혼합비율 표시 생략을 허용했으나 일부 대형업체가 이를 악용, 수입육 원산지 표시를 마음대로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아울러 쌀 인증표장제도인 '러브미(米)'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3년 연속 우수브랜드 선정에서 2년 연속으로 완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얻어지는 쌀 소비 촉진 및 매출 신장 등의 경제적 효과는 연간 754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featuring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sitting at a desk with a lamp.

Advertisement for Kwangju Daily (光州日報) featuring a graphic of a sun and the text '광고접수안내' (Advertisement Reception Guide).

Large advertisement for '무등빌딩임대' (Mudeung Building Rental) with a large image of the building and text listing features like '최상의 업무지역' (Best business area) and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Area 330sqm / floor (split rental possible)).

Advertisement for '다산공인중개사' (Dasan Certified Real Estate Agent) with contact info and a list of services like '▶빌딩(임대용, 투자용)' and '▶신축 무인텔 매매(여관)'.

Advertisement for '퍼스트부동산' (First Real Estate) with a large '전국' (Nationwide) graphic and '1천만 ~ 10억' (10 million ~ 1 billion) price range.

Advertisement for '正心 正視 正行' (Jeongsin Jeongsi Jeonghaeng) real estate agency with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Advertisement for '부동산투자클럽' (Real Estate Investment Club) with a list of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including '▶트지(광주호상동-가든식당, 과수원, 임야)' and '▶대지(신촌동) 784㎡(버스승강장, 전철역 5분거리)'.